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좋은선수들 많이 만났기에 난 행복한 지도자"

광주일고 지휘봉 놓는 허 세 환 감독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난 행복한 감독이었습니다. 광주일고의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광주일고 허세환 감독이 수원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 4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끝으로 광주일고의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광주일고와 호남 야구를 대표해왔던 허 감독은 오는 9월 모교 인하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1992년 광주일고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1998년까지 7시즌을 보냈고, 2002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광주일고에서 선수들을 조련해왔다.

1994년 무등기 초대 우승을 시작으로 전국무대에 이름을 알린 허 감독은 청룡기, 전국체전우승 그리고 올 시즌 황금사자기까지 전국대회 10차례 우승과 5번의 준우승을 이끌며 명장 중의 명장으로 손꼽힌다.

2006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는 KIA에서 뛰고 있는 양현종·김선빈 등을 앞세워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허 감독은 "지난 6월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했었다. 광주일고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는데 후배들에게도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에서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을 굳혔다"며 "좋은 시점에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광주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허 감독은 서재응·김병현·최희섭 빅 리거 3인방을 조련한 감독으로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프로무대의 수많은 스타선수들이 허 감독 품을 다녀갔다.

허 감독은 "성공한 제자들보다 개인적인 사정, 가정적인 문제로 재능을 펴지 못하고 중도에 야구의 꿈을

94년 무등기 초대 우승시작으로
14년간 전국대회 10차례 제패
최희섭·서재응 등 빅리거 배출
내달 모교 인하대서 새로운 도전

포기 한 제자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며 "야구로 출세는 못했지만 잊지않고 연락을 해주는 옛 제자들과 열심히 야구 무대에서 일고의 명예를 높여주는 제자들 덕분에 지도자로서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제자들에 대한 애틋함을 전했다.

광주일고는 해마다 우승후보로 꼽히는 아마야구의 강호지만 인하대는 올 시즌 1승을 거두는데 그친 약체다. 허 감독에게는 새로운 도전 무대인 셈이다.

허 감독은 "선수들에게 늘 모교에 긍지를 가지고 예의범절을 지키라는 등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왔다. 앞으로의 지도 방향도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이지만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기본기 위주의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감춰진 재능을 보고 기본이 갖춰진 선수들을 발굴해 기회를 줄 계획이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언급했다.

봉황기는 광주일고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대회다.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다.

11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허 감독은 "10번째 우승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황금사자기 우승으로 그 꿈을 이뤘다. 봉황기에서는 세 차례 준우승만 차지했다. 16강 대결에서 난적 천안 북일고를 만나게 됐지만 좋은 승부를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광래 축구' 오늘밤 색깔 드러낸다

전원공격-전원 수비 '토털사커' 데뷔전
월드컵 무승부 나이지리아와 '끝장 승부'

전원 공격과 전원 수비를 앞세운 '조광래식 토털사커'로 새롭게 변신을 추구하는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였던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와 '끝장 승부'를 펼친다.

조광래(56)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KBS2생중계)에서 '하나은행 초청 월드컵 대표팀 16강 진출 기념 경기'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2로 비기면서 승부를 내지 못했던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나이지리아는 비록 남아공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0위(7월 현재)로 한국(44위)보다 14계단이나 높다. 이번에 방한한 나이지리아대표팀은 비록 베스트멤버는 아니지만 한국과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칼루 우체(알메리아)를 비롯해 딕슨 에투후(풀럼), 대니 시투(볼턴), 피터 오뎀윙기(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오바페미 마틴스(루빈 카잔) 등 해외파 선수 11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태극호의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치르는 조광래 감독은 나이지리아 평가전을 앞두고 전반에는 '월드컵 멤버'를 먼저 기용하고 후반에 '젊은 피'를 투입해 팬들에게 2010 남아공월드컵의 감동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세대교체 주역들의 가능성 여부도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광래 감독은 남아공 월드컵 이후 숙제로 남은 수비 조직력 차원에서 '3-4-2-1 전술'을 사용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평가전 전반에는 박주영(모나코)를 원톱으로 좌우 날개에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염기훈(수원)을 배치하고 중앙 미드필더에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백지훈(수원)과 기성용(셀틱)을 세울 전망이다. 후반전부터는 조 감독이 기대하는 젊은 '예비 황태자'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프랑스 피가로 요트레이스

프랑스 브레스트 항에서 아일랜드의 킨세일 항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제41회 피가로 솔로 요트경주대회가 10일(한국시간) 개막됐다. /연합뉴스

KIA, 내달 19일 LG와 시즌 마지막 경기

프로야구 잔여경기 일정 확정

KIA가 9월19일 잠실에서 LG와 2010시즌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일 75경기의 잔여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잔여경기는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27일간 진행되며, 시즌 최종일인 19일 전국 4개 구장에서 8개 구단의 시즌 마지막 대결이 벌어진다.

KIA는 20경기의 잔여경기를 소화하며 잠실에서 LG와 최종전을 갖는다. 홈에서는 12경기를 치르며 원정 8경기가 남았다.

잔여경기 기간 동안 두산과 가장 많은 4경기가 편성됐고, 롯데·LG·삼성·SK와 각각 3경기, 한화와 넥센과는 2경기씩을 치른다.

9월 20일까지는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가 진행되지 않지만, 동일대진 경기가 2경기 이상 연기될 경우 9월 21일 이후에 편성되는 경기는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블헤더의 경우 제 1경기는 연장전 없이 9회까지만 진행된다.

일정 내에 잔여 경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할 경우 포스트시즌 일정과 무관함 팀의 경기는 포스트 시즌 이후로 추후 편성된다.

◇2010 프로야구 KIA잔여경기 일정

▲8월24일=롯데-KIA(사직) ▲25일= KIA-LG(광주) ▲26일= KIA-SK(광주) ▲27일= KIA-SK(광주) ▲29일= KIA-넥센(광주) ▲31일= 삼성-KIA(대구) ▲9월 2일= KIA-롯데(광주) ▲3일= KIA-롯데(광주) ▲4일= 두산-KIA(잠실) ▲5일= 두산-KIA(잠실) ▲7일 = KIA-한화(광주) ▲ 8일= KIA-한화(광주) ▲ 9일 = 넥센-KIA(목동) ▲12일=SK-KIA(문학) ▲14일 = KIA-두산(광주) ▲15일=KIA-두산(광주) ▲16일=KIA-삼성(광주) ▲17일=KIA-삼성(광주) ▲18일= LG-KIA(잠실) ▲19일= LG-KIA(잠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일 KIA-한화전 우천 취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오후 6시 30분 청주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취소된 경기는 추후 일정에 편성된다.

오늘 지구촌 '축구전쟁'

스페인-멕시코 등
108국 대표 격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끝난 지 꼭 한 달만인 오는 11일 지구촌 곳곳에서 축구 열기가 다시 불을 지핀다.

10일 국제축구연맹(FIFA) 홈페이지에 따르면 FIFA가 정한 'A매치 데이'를 맞아 10~11일 이틀간 유럽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모두 54경기가 치러진다.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2012) 지역예선 첫 경기인 에스토니아-페로스 제도 경기와 2012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2경기 등 3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51경기는 모두 친선전이다.

스페인은 월드컵 16강에서 발길을 돌린 멕시코와 11일 멕시코시티 아즈테카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월드컵 준우승국인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같은 날 상대적 약체인 우크라이나와 원정 친선 경기를 벌이고 '전차군단' 독일은 북유럽의 강호 덴마크와 코펜하겐에서 맞붙는다.

월드컵 8강에서 '조기탈락'한 브라질은 적진 한복판인 뉴욕에서 미국과 각각 남미와 북중미의 자존심을 걸고 싸운다. /연합뉴스